

군산항에서 유통되는 어류의 위판 현황

이 충 렬 · 최 혜 림*

군산대학교 자연대 생물학과, *군산 옥구초등학교

A Study on the Consignment Quantity and Value of Fishes Circulating in Kunsan Harbor, Jeollabuk-do, Korea

Chung-Lyul Lee and Hye-Rim Choi*

Department of Biology, Kunsan National University, Kunsan 573-701, Korea,

*Kunsan Okku Elementary School

This study investigated consignment quantity and value of marine fishes consigned in Kunsan Harbor from 1993 to 1999.

The total quantity of fishes consigned over seven years period was 194,531 tons (t), of which 31,632 t (16.3%) in 1994 was the largest, while 25,956 t (13.3%) in 1997 was the smallest. The total consignment value was 367,352,125 thousand won, of which 63,221,365 thousand won (17.2%) in 1996 was the highest, and 38,835,400 thousand won (10.6%) in 1999 the lowest. The group of fish that held the largest weight of consignment sale in Kunsan Harbor was croakers; their consignment quantity was 21,217 t. or 10.9% of all fishes, and their consignment value was 112,768,637 thousand won which is 30.7% of the total value.

Fishes consigned in Kunsan Harbor were of great significance in the regional economy, as they comprised 74.7% of the consignment quantity and 76.4% of the consignment value of all marine fishes in Jeollabuk-do, although they came under very low weight as 3.1% of the consignment quantity and 4.2% of the consignment value of the total consignment sales of Korea.

Key words : Consignment quantity and value, marine fishes, Kunsan Harbor

서 론

전라북도의 서해연안의 중심 항구인 군산은 예로부터 서해안의 해상 운송통로로써 중요한 역할을 해온 곳이며, 군산을 접하고 있는 서해연안 일대는 조석간만의 차가 커서, 간조시에는 넓은 갯벌지대가 형성되므로 풍부한 해산동물이 출현하는 곳이다(심과 이, 1999).

군산항은 1899년에 개항된 이후 오늘날의 항구로써 면모를 갖추기 시작한 것은 1906년부터로 알려져 있으며(최, 1984; 군산시, 1991; 진포문화예술연구회, 1998),

오늘날에는 주변 연안의 죽도를 비롯하여 위도·어청도·연도·개야도·고군산군도 등의 다양한 어장을 끼고 있고, 이외에도 목포, 흑산도, 제주도, 동중국해 등에서 조업한 수산물들도 집결되어 풍부한 수산물 공판장을 이루고 있다(군산시, 1991). 현재 군산항은 근래의 산업 발달과 중국과의 항로 개설에 의하여 수산물 유통은 물론, 각종 무역 및 여객운송 등의 항구로써의 복합적인 기능이 수행되고 있으나, 아직은 국내 수산물 유통 항구로써의 기능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어류가 가장 중요한 대상 품목에 해당되었으나, 그동안의 위판 실적이 비교 정리된 바가 없었기 때문에

연도별 어류의 위판 실적 변화와 유통의 흐름을 정확히 파악할 수가 없는 상태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군산항과 주변 어판장에서 근래 7년 동안 위판되었던 어류의 연도별 위판량과 위판액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연구 방법

본 연구는 1993년 1월부터 1999년 12월까지 군산시 해망동, 금암동, 소룡동, 옥구읍 하계 및 중동위판장에서 위판된 어류를 대상으로 연도별, 월별 위판량과 위판금액을 분석하였다. 이들 5개의 수산물 위판장 중에서 군산시 금암위판장은 1997년 6월까지 수산물을 위판하였고, 그 후 해망동위판장으로 통합되었다. 각 위판 실적의 값은 소수첫째자리에서 반올림 하였고, 전체 위판량의 단위는 'metric ton (t)'이고, 위판금액의 단위는 '천원'이다. 연도별 위판량과 위판금액은 각 위판장에서 위판된 어류 중에서 7년간 총 위판량이 10,000t 이상이었던 조기류, 갈치, 멸치, 젓거리류, 잡어 등으로 구분하여 정리하였고, 이들 중에 주요 어종별 비교는 군산항에서 위판량과 가격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참조기, 민어, 복어와 아귀를 중심으로 비교 분석하였다. 군산항에서 위판된 연도별 위판량 및 위판금액은 군산시 해망동 위판장과 군산시 수산업협동조합의 도움을 받아 정리하였다.

결 과

1. 군산항의 역사적 배경

전라북도 서해연안의 북부에 위치하고 있는 군산은 삼국시대에 백제의 요충지로서 중국과 일본을 왕래하는 선박의 출입이 잦았던 곳이었다. 백제의 문화가 일본으로 전파되어 일본의 아스카문화를 꽃피우게 하였고, 국

운이 기울어 나당연합군에게 침공을 당할 때에는 국경의 요충지로 군사적으로도 중요한 지역이기도 하였다(군산시, 1991). 고려 때의 군산지방은 조세와 공물의 집산지로 크게 발달하여, 성종 때는 진성창이 설치되어 조창과 조운의 중요한 기지가 되었으나, 고려 후기에는 왜구들의 침략이 계속되어 고려말 우왕(AD 1380) 때는 최무선 장군의 수군이 왜구들을 섬멸시킨 진포대첩의 전승지로 빛나는 곳이다(군산시, 1991). 이 후 조선시대에도 군산 일대의 금강 하구는 국가의 조창, 조운의 기지로써 활용되었고, 중종 7년에는 군산창을 두었다가 효종 9년에는 호남청으로 하였다(전라북도, 1984; 군산시, 1991). 그 후 일제의 침략으로 군산의 역사는 커다란 변혁을 가져오기 시작하였다. 일본인이 강경을 비롯하여 군산에 들어 온 것은 1894년 청일전쟁 때부터이며, 이후 1899년 군산 개항까지의 5년간은 조선정부의 행정이 마비된 무방비와 방치 속에서 일본인의 도시가 되어, 그 후 해방될 때까지 일본의 쌀 공급을 위한 수탈항구로 사용되었던 곳이다(군산시, 1991; 이, 1992).

해방 이후 군사 정치와 6·25사변을 겪으면서 군산항은 부산, 인천에 비해 급격히 약화되어 항구로서의 기능을 잃어 갔고, 그 뒤 60~70년대는 지역 균형 개발 계획에서도 소외되어 더욱 낙후되어, 제주도 다음으로 수산세력이 약화되어 버렸다(이, 1992). 그러던 것이 1980년대 후반부터 서해안시대의 개막과 더불어 중국과의 교통이 열리면서 중국 진출을 위한 전초기지로서 대규모의 공업단지과 항구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 오늘날 군산은 중국 교역과 서해안 시대를 이끌어 갈 주요 거점 항구로 부각되면서 앞으로 많은 발전이 기대되는 곳이다.

2. 어류의 연도별 위판 실적

1993년 1월부터 1999년 12월까지 군산시의 5개 위판장에서 위판된 수산물의 총 위판량은 260,337t이었고, 이에 대한 위판 총액은 480,985,925천원이었다. 이 중에

Table 1. Comparisons of consignment quantity and value of marine fishes in Kunsan Harbor from 1993 to 1999 (quantity: metric ton; value: thousand won)

Division		Year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Quantity	Total ¹⁾	45,342	43,270	33,647	32,155	32,956	35,198	37,769
	Fishes	30,383	31,632	26,688	26,524	25,956	26,832	26,516
	%	67.0	73.1	79.3	82.5	78.8	76.2	70.2
Value	Total ¹⁾	72,969,759	80,276,074	69,238,960	73,151,297	68,196,591	57,514,379	59,638,865
	Fishes	51,216,021	59,759,450	57,155,658	63,221,356	55,600,260	41,563,981	38,835,400
	%	70.2	74.4	82.5	86.4	81.5	72.3	65.1

¹⁾ sums of the consigned quantity and value of marine products (fishes, molluscs, crustacea and green weeds)

어류의 총 위판량은 194,531 t이었고, 이에 대한 위판 총액은 367,352,126천원으로써 위판량에서는 전체의 74.7%였고, 위판금액으로는 76.4%에 해당되었다 (Table 1). 한편 군산항에서 어류가 가장 많이 위판된 해는 1994년으로 수산물 총 위판량의 43,269 t 중 어류가 31,632 t으로 73.1%였고, 이들에 대한 위판액은 59,759,450천원으로 전체 수산물 위판액의 74.4%를 나타내었다. 반면에 가장 적은 해는 1997년의 25,956 t으로 1994년 위판량에 비하여 17.9%가 감소하였다. 위판액에서는 1996년에 73,151,297천원으로 가장 높았고, 반면에 위판액이 가장 저조한 해는 1999년의 59,638,865천원으로 1996년도보다는 약 38.6%의 감소율을 나타내었다 (Table 1). 어류의 위판량은 1994년도에 약 4.1% 증가를 나타내었다가 1995년부터는 계속 감소추세를 나타내어 1997년에 가장 적은 양이 위판된 이후 약간씩 증가를 나타내었으나, 위판액의 변화는 위판량과는 달리 1994년 이후 1996년을 제외하고는 계속 감소 추세로 나타나고 있었다 (Table 1).

3. 주요 어류의 위판 실적

1993년 1월에서 1999년 12월까지의 어류 총 위판량은 194,531 t이었는데, 이 중에서 1994년도에는 7년간 위판한 어류의 16.3%에 해당하는 31,632 t으로 가장 많은 위판고를 올렸으나, 반대로 1997년도에는 25,956 t (13.3%)으로 위판실적이 가장 저조하였다. 한편 이 기간 동안에 어류의 총 위판액은 367,352,125천원으로, 이 중에서 1996년도가 63,221,356천원에 전체 총액의 17.2%로써 가장 높은 위판액을 올렸고, 다음은 1994년에 59,759,450천원으로 16.3%였다. 그러나 1999년과 1998년에는 각각 38,835,400천원과 41,563,981천원으로 전체 위판액의 10.6%와 11.3%로 가장 낮은 위판 실적을 나타내고 있었다 (Table 1).

1) 조기류 (Croakers)

1993년부터 1999년까지 조기 총 위판량은 21,217 t으로 전체 어류의 10.9%였고, 위판액은 30.7%였다. 이 중에서 1994년에는 5,040 t으로 전체 조기량의 23.8%로 가장 높은 위판량을 나타내었고, 다음은 1996년에 4,034 t으로 19.0%였다. 그러나 1993년도에는 총 1,719 t으로 8.1%의 극히 적은 양이 위판되었다. 한편 위판액은 1996년에 24,801,641천원으로 전체 금액의 22.0%로 가장 높았고, 1999년에는 8,545,091천원으로 가장 낮은 위판액을 나타내었다 (Table 2). 이들 조기류 중에서 위판 실적이 가장 높은 어류는 참조기와 민어였다.

(1) 참조기 (Yellow Croaker)

1993부터 1999년까지 군산항에서 위판된 참조기의 판매량은 총 18,750.2 t으로, 이 기간 동안에 위판된 전체 어류의 9.6%에 해당되고, 이에 대한 판매액은 102,322,905천원으로 전체 어류의 위판액의 27.9%였다. 한편 같은 기간에 판매된 참조기는 전체 조기류 위판량의 88.2%였고, 위판액은 90.1%를 나타내어 조기류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참조기는 위판량의 비율 보다는 위판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참조기의 위판액은 1996년에 21,476,024천원으로 가장 높았고, 반대로 가장 저조한 해는 1998년의 7,954,166천원이었다. 한편 참조기의 월별 위판 실적의 변화를 보면 Fig. 1A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9월에서 다음해 1월까지 전체 위판량의 77.4%로, 위판액도 전체의 69.4%를 차지하였다. 또한 1년 중 참조기의 위판량이 가장 높은 달은 1월로 전체의 19.9%로 월 평균 8.3%의 약 2.4배의 위판량을 나타내었고, 가장 낮은 시기는 6~7월로 연평균 2.7%에 불과하였다. 위판액은 12월로써 조사 기간 동안의 전체 금액의 18.0%였고, 월평균 8.3%의 2.2배인데 반해, 가장 낮은 기간은 7월로 216,272천원으로 년 평균의 2.5%에 불과하였다. 따라서 군산항에서 위판되는 참조기의 위판실적은 매년 1월과 9월에서 12월에 가장 많은 실적이 나타났고, 반면에 2~8월까지의 실적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3~5월에는 위판량은 적으나 위판액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Fig. 1A).

(2) 민어 (Brown Croaker)

군산항에서 위판되고 있는 조기류 중에서 참조기 다음으로 위판 실적을 올리고 있는 민어는 참조기의 위판 실적에 비해 적지만 상당한 양이 유통되고 있었다. 먼저 민어의 위판량은 1995년에 290.9 t으로 전체 992.7 t의 29.3%로 가장 많았고, 반면에 1999년에는 14.1 t으로 전체의 1.4%에 불과한 매우 적은 양이 위판되었다. 한편 위판액은 1996년에 2,142,535천원으로 위판량이 가장 높았던 1995년의 1,752,274천원보다 오히려 22.3% 증가한 높은 가격에 위판되었고, 반면에 가장 낮은 해는 1999년으로 114,661천원으로 전체 위판액의 1.8%에 불과하였다 (Fig. 1B).

2) 갈치 (Cutlassfish)

1993년부터 1999년까지 갈치의 총 위판량은 16,794 t이었는데, 이 중에서 1993년의 위판량은 5,134 t으로 갈치 총 위판량의 30.6%로 가장 많았고, 반대로 1997년에는 977 t으로 전체 양의 5.8%에 불과하였다. 한편 갈치는 1993년 이후 계속 감소하다가 1998년부터 위판량이 조금씩 증가하고 있으나 그 양은 적은 편이었다 (Table 2). 한편 1993년 1월에서 1999년 12월까지의 갈

Table 2. Comparisons of consignment quantity and value of several fishes circulated in Kunsan Harbor (Quantity (Q): metric ton; Value (V): thousand won)

Kinds / years		'93	'94	'95	'96	'97	'98	'99	Total
Croakers	Q	1,719	5,040	3,349	4,034	3,015	1,925	2,135	21,217
	V	9,639,938	22,670,057	17,156,575	24,801,641	19,952,742	10,002,593	8,545,091	112,768,637
Cutlassfishes	Q	5,134	4,260	1,802	1,393	977	2,064	1,165	16,795
	V	7,365,706	6,976,692	4,695,247	5,009,963	2,969,155	4,492,436	2,822,395	34,331,594
Anchovies	Q	1,538	1,389	1,513	4,531	4,166	2,990	2,409	18,536
	V	1,939,082	1,769,582	4,404,644	6,216,221	5,635,350	3,751,334	2,648,554	26,364,767
Salted fishes	Q	10,919	11,646	9,817	7,929	8,458	8,815	10,664	68,248
	V	2,182,041	2,648,231	2,804,159	1,990,883	2,224,633	3,302,298	3,460,113	18,612,358
Other fishes	Q	2,112	3,456	3,982	2,945	4,744	5,683	3,972	26,894
	V	3,646,077	5,536,037	6,125,316	4,505,656	7,463,838	5,193,720	6,958,672	39,429,316
Total	Q	21,422	25,791	20,463	17,201	21,360	21,477	20,345	148,059
	V	24,772,844	39,600,599	35,185,941	42,524,364	38,245,718	26,742,381	24,434,825	231,506,672

치 총 위판액은 34,331,594천원이었는데, 이 중에 1993년의 갈치 총 위판액은 7,365,706천원으로 갈치 총 위판액의 21.5%였고, 당해 어류 총 위판액의 29.7%를 나타내어 가장 높은 위판 실적을 올렸으나, 1999년에는 2,822,395천원으로 갈치 총 위판액의 8.2%였고, 당해 어류 총 위판액의 11.6%로 위판 실적이 가장 낮았다 (Table 2).

갈치의 월별 위판 실적을 보면 판매량과 판매액에서 7~11월에 가장 많이 위판 실적을 올렸는데, 이 기간 동안에 약 15,507.3 t이 위판되어 전체 위판량의 약 92.3%에 해당되었다. 이 중에서 8월에는 4,545.5 t으로 연 평균의 약 3.2배 정도였고, 가장 적은 판매량은 1~6월로써 총 734.4 t으로 전체의 4.4%에 불과하였다. 한편 위판액도 7~11월에 가장 높았는데, 이 기간 동안에 위판된 총액은 전체 위판액의 90.0%였고, 이 중에 위판량이 가장 높았던 8월의 위판액은 35.1%인데 반해 위판액이 가장 낮은 시기는 3월로 전체 위판액의 0.1%였다 (Fig. 1C).

3) 멸치 (Anchovies)

1993년부터 1999년까지의 멸치 총 위판량은 18,535 t이었는데, 이 중에서 1996년에는 4,531 t이 위판되어 7년간의 멸치 총 위판량의 24.4%로 가장 높았고, 96년도의 어류 총 위판량의 17.1%였다. 반면에 1994년에는 1,389 t으로 전체 멸치의 7.5%였고, 전체 어류의 4.4%로 매우 낮은 위판실적을 올렸다. 한편 1993년 1월에서 1999년 12월까지의 멸치 총 위판액은 26,364,767천원으로, 이 중에 위판량이 가장 높았던 1996년에 6,216,221천원으로 전체 멸치 위판액의 23.6%였고, 당해 연도 어류 총 위판액의 9.8%에 해당되는데 반해, 1994년에는 1,769,582천원으로 전체 6.7%에 불과하였으며, 당해 연

도 어류의 총 위판액의 3.0%로 가장 낮은 실적을 나타내었다 (Table 2).

4) 젓거리 (Salted fishes)

군산항에서 멸치를 제외한 젓거리류로 위판되는 종류는 밴댕이, 청멸, 웅어, 반지, 황강달이 등이 활용되고 있는데, 1993년부터 1999년까지 젓거리로 위판된 총량은 68,248 t이었다. 이 중에서 1994년에는 11,646 t이 위판되어 젓거리 총 위판량의 17.1%에 해당되었고, 당해 연도의 어류 총 위판량의 36.8%로 가장 많은 위판 실적을 나타내는데 반해, 1996년은 7,929 t이 위판되어, 전체 젓거리류의 11.6%였고, 어류 총 위판량의 29.9%로 가장 적었다. 한편 젓거리류는 1996년을 기준으로 다시 증가 추세를 나타내었다 (Table 2).

5) 잡어 (Other fishes)

1993년부터 1999년까지의 잡어류의 총 위판량은 26,893 t이었는데, 이 중에서 1998년에는 5,683 t으로 잡어류 전체의 21.1%였고, 당해 연도 어류 위판량의 21.2%로 가장 많은 위판 실적을 나타내는데 반해, 1993년에는 2,112 t으로 전체 어류의 7.0%로 매우 적은 양이 위판되었다. 한편 이들 잡어류 총 위판액은 39,429,316천원이었는데, 이 중에서 1997년에는 7,463,838천원으로 당해 연도 어류 총 위판액의 13.4%로 가장 많은 위판 실적을 나타내었는데, 반대로 1993년에는 3,646,077천원으로 잡어 총 위판액의 9.2%였고, 당해 어류 총 위판액의 7.1%로 가장 낮은 실적을 나타내었다 (Table 2).

(1) 복어류 (Puffers)

복어류는 우리 식생활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어류로써 이들의 위판량은 잡어 전체의 11.1%였으나 위판액은 34.5%로 높은 비율을 나타내었다 (Table 2).

복어류는 9~12월에 위판 실적이 높아 전체 복어의 67.4%였고, 복어 위판액도 64.6%에 해당되었다. 한편 복어의 위판량과 위판액이 가장 저조한 시기는 7월이었고, 이외에도 1월에서 8월까지의 거의 비슷하게 위판 실적이 저조한 상태로 나타났다 (Fig. 1D).

(2) 아귀 (Monk fishes)

우리나라에서 아귀류는 찜이나 탕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는데, 본 조사 기간 동안에 판매된 아귀류는 총 3,078.4 t으로 잡아 전체의 11.4%이고, 판매액은 16,104,523천원

으로 어류 전체 판매액의 40.8%에 해당되었다. 1년 중에 아귀의 위판고가 가장 높은 시기는 10월에서부터 이듬해 1월까지로 이 기간 동안의 위판량은 1,910.0 t으로 전체의 62.0%였고, 위판액은 총 8,694,756천원으로 전체 아귀 위판액의 54.0%를 나타내었다. 또한 일년 중 가장 많은 위판 실적을 올리는 시기는 12월로 전체의 21.7%였고, 위판액은 전체의 17.7%에 해당되었다. 반면에 1년 중 위판 실적이 가장 저조한 시기는 2월에서부터 9월까지로 이 기간 동안에 위판량은 38.0%였고, 위판액은 46.0%로 나타났는데, 특히 7~8월에 위판실적이 가장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Fig. 1E).

고찰

항구의 발달과 쇠퇴는 선박의 이출입에 따른 물동량의 증감에 의해 크게 변화되고 있는데, 지금까지 군산항은 해외 무역을 중심으로 발달한 무역 항구라기보다는 주로 국내 수산물 유통 기능을 중심으로 발달해 왔던 곳이다 (최, 1984; 해운항만청, 1989; 해양수산부, 1997~2000).

1993년부터 1999년까지 군산항에서 위판된 수산물 중에서 어류가 전체 위판량의 74.7%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위판액은 전체의 76.4%를 나타내고 있어, 어류의 값이 다른 수산물의 위판값보다 높게 위판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전라북도에서 위판된 수산물도 Table 4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계속 감소 추세를 나타내고 있었는데, 이 중에서 위판량의 차가 가장 크게 나타난 것은 1995년도의 위판량이 1994년도에 비해 42.4%나 감소한 것에 대해 군산항에서 위판량의 감소는 22.2%였고, 전국적으로는 3.6% 정도의 감소량만을 나타내고 있어, 1995년도는 전라북도의 수산물 위판 실적이 다른 시도 위판 실적보다 현저히 낮았음을 알 수 있었는데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1994~1999), 이 점은 이 기간 동안에 특히 전라북도에서 새만금 간척사업으로 인하여 어업보상의 시기로써 어민들의 연안 어업 및 기타 수산업이 위축된 결과로 추측되고 있다.

한편 군산항에서 취급되는 수산물 위판량이 전라북도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59.7~93.8%인데 반해, 전국적으로는 1.9~2.7% 정도에 불과하였고, 이들의 위판액은 전라북도에서는 77.1~84.0%인데 반해, 전국에서는 2.8~3.9%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아, 군산항의 수산물 위판량과 위판액이 전라북도의 전체 위판량과 위판액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전국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별로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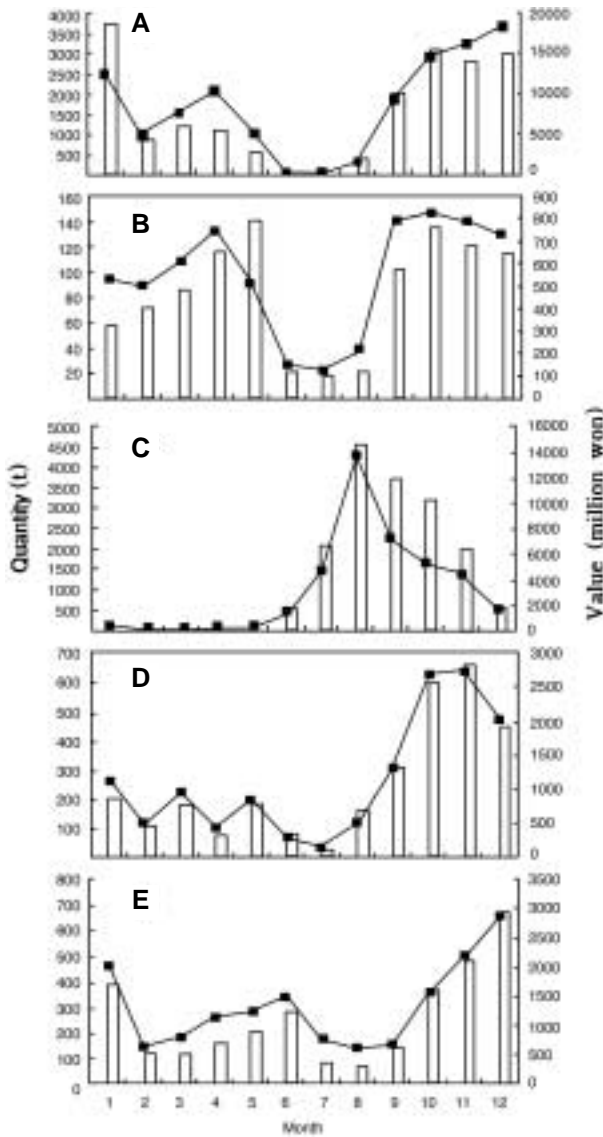


Fig. 1. Monthly variation of consignment quantity and value of several important fishes in Kunsan Harbor from 1993 to 1999. A, yellow croaker; B, brown croaker; C, cutlassfish; D, puffers; E, monk fishes. ■, consignment value; □, consignment quantity.

Table 3. Comparisons of consignment quantity and value of marine products among Kunsan, Jeollabuk-do and Korea (Quantity: metric ton, Value: thousand won)

Years	Kunsan		Jeollabuk-do ¹⁾		Korea ²⁾	
	Quantity	Value	Quantity	Value	Quantity	Value
93	45,322	72,969,759	75,366	90,396,993	1,700,489	1,881,641,163
94	43,269	80,276,074	72,472	103,323,821	1,622,667	2,171,918,349
95	33,647	69,238,960	41,776	89,833,476	1,564,961	2,187,373,057
96	32,154	73,151,297	38,957	92,521,450	1,711,734	2,404,055,276
97	32,955	68,196,591	37,922	81,159,307	1,489,109	2,119,336,136
98	35,197	57,514,379	37,512	69,564,947	1,370,341	2,023,294,704
99	37,769	59,638,865	51,039	87,449,859	1,336,062	2,280,091,536
Total	260,313	480,985,924	355,044	614,249,853	10,795,363	15,067,710,221

¹⁾ 전북일보사 (1994~1999), 전라북도 (1996~1999);

²⁾ 한국수산회 (1989~1999), 통계청 (1991~1999), 해양수산부 (1997~2000),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1994~1999), 수산경제연구회 (1999).

Table 4. Comparisons of consignment quantity and value of fishes between Kunsan and Korea (Quantity: metric ton; Value: thousand won)

Years	Kunsan		Korea ¹⁾	
	Quantity	Value	Quantity	Value
93	30,383	51,216,021	897,900	1,171,317,325
94	31,632	59,759,450	914,240	1,297,768,321
95	26,688	57,155,658	893,657	1,319,150,839
96	26,524	63,221,356	1,040,937	1,484,516,952
97	25,956	55,600,260	820,497	1,333,565,936
98	26,832	41,563,981	861,434	1,268,484,657
99	26,516	38,835,400	876,171	1,310,293,061
Total	194,531	367,352,125	6,304,836	9,185,097,091

¹⁾ 한국수산회 (1989~1999), 통계청 (1991~1999), 해양수산부 (1997~2000),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1994~1999), 수산경제연구회 (1999).

그 동안 위판된 수산물 중에서 어류의 연간 위판 실적을 보면 1993년 이후 어류 위판량이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를 나타내고 있음에 따라 위판액도 1994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가 1998년과 1999년에는 급격히 떨어지는 현상을 나타내었는데 (Table 4), 이점은 우리나라의 1997년 IMF 이후에 국내 수산 어업이 위축되고 반대로 어류의 수입량은 증가하여 국내 어류의 가격이 하락한 것으로 사료되었다.

군산항에서 위판된 어류 중에서 조기류는 위판량에서 전체 어류의 10.9%에 불과하나, 위판액은 전체 어류 판매액의 30.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어종으로 확인되었고, 다음은 갈치로써 위판량은 8.6%이고, 위판액은 전체의 9.3%였다. 한편 멸치는 위판량이 9.5%로, 위판액은 7.2%였고, 젓거리의 위판량은 전체 어류의 35.1%로 많은 양이었으나, 위판액은 5.1%에 불과하였다. 한편 갈치는 1993년에 가장 많은 위판량과 위판액을 올렸으나 1994년 이후부터는 계속적으로 감소 추세를 나타내었고, 특히 멸치는 1995년 위판량은 적었으나, 위판액

은 매우 높았는데, 이때는 우리나라에서 멸치 파동이 생긴 결과였다. 한편 군산항에서 위판된 어류의 위판실적을 우리나라 전체 어류 위판 실적에 비교할 때 위판량은 2.5~3.5%, 위판액은 3.3~4.6%로 그 비중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4).

한편 군산항에서 위판되는 어류의 가격은 조사 기간 동안 평균 t당 1,888천원이었으나 전국 평균은 t당 1,457천원보다 29.6% 높은 가격으로 위판되었던 것으로 나타나, 군산항의 위판액이 다른 항구의 위판액보다 비교적 높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었다 (Table 4).

요 약

본 연구는 1993년부터 1999년까지 군산항에서 위판된 어류의 총 위판량은 194,531 t였는데, 이 중에서 1994년이 31,632 t (16.3%)으로 가장 많았고, 반면에 1997년이 25,956 t (13.3%)으로 가장 적었으며, 이들의 총 위판액은 367,352,125천원으로, 이 중에 1996년이 63,221,356천원 (17.2%)으로 가장 높은 반면에 1999년이 38,835,400천원 (10.6%)으로 가장 낮았다. 군산항에서 위판된 어류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어종은 조기류로써 위판량은 21,217 t으로 전체 어류의 10.9%였고, 위판액은 112,768,637천원으로 전체 어류의 30.7%였는데, 이 중에서 참조기가 전체 조기류 위판량의 88.2%였고, 위판액의 90.1%에 해당되었다. 다음은 갈치류로써 위판량은 전체 어류의 8.9%였고, 위판액은 9.3%였고, 멸치의 위판량은 9.5%이고, 위판액은 7.2%였다. 한편 젓거리류의 위판량은 35.1%였으나, 위판액은 전체 어류의 5.1%에 불과하였다.

군산항의 수산물 위판량은 전라북도 전체의 59.7~93.8%이고, 위판액은 77.1~84.0%인데 반해 전국의 위

판 실적에 대하여 위판량은 1.9~2.7%, 위판액은 2.8~3.9%에 불과하였는데, 이 중에서 어류는 전라북도 전체 위판량의 평균 74.7%이고 총 위판액의 76.4%를 차지하고 있지만 이것은 전국 위판량의 2.5~3.5% (3.1%)이고, 위판액은 3.3~4.6 (4.2%)에 불과하여, 군산항의 어류 위판 실적은 전라북도 지역 경제에는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전국적으로는 그 비중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 용 문 헌

- 군산시. 1991. 군산시사. 군산시, pp. 301~304.
- 수산경제연구회. 1999. 수협업무통계.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서울, vol. 1999, p. 119.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1994~1997. 수산물계통판매고통계연보.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서울, 1994, pp. 25~239; 1995, pp. 25~231; 1996, pp. 25~227; 1997, pp. 25~221; 1998, pp. 12~199; 1999, pp. 14~205.
- 심광수·이충렬. 1999. 새만금 일대의 어류상. 한국환경생물학회지, 17(3) : 293~303.
- 이방호. 1992. 수협 30년사.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pp. 556~567.
- 전라북도. 1984. 내고장 전북의 뿌리. 전라북도, 전주, 1050 pp.
- 전라북도. 1996~1999. 전북통계연보. 전라북도, 서울, vol. 36, pp. 5~159; vol. 37, pp. 6~176; vol. 38, pp. 10~200; vol. 39, pp. 6~226.
- 전북일보사. 1994~1999. 전북연감. 전북일보사, 전주, 1994, pp. 415~416; 1995, pp. 323~324; 1996, pp. 376~377; 1997, pp. 319~320; 1998, pp. 320~322; 1999, pp. 384~385.
- 진포문화예술허향토문화연구회. 1998. 군산사랑. 진포문화예술허향토문화연구회, 군산, 117pp.
- 최지신. 1984. 군산수협 50년사. 군산시수산업협동조합, 군산, pp. 9~18.
- 통계청. 1991~1999. 지역통계연보. 통계청, 대전, vol. 4, pp. 148~149; vol. 5, pp. 156~157; vol. 6, pp. 158~159; vol. 7, pp. 122~123; vol. 8, pp. 124~125; vol. 9, pp. 124~125; vol. 10, pp. 126~127; vol. 11, pp. 126~127; vol. 12, pp. 126~127.
- 한국수산회. 1989~1999. 수산연감. 한국수산회, 서울, vol. 21, pp. 371~373; vol. 22, p. 356~357; vol. 23, pp. 294~295; vol. 24, pp. 331~332; vol. 25, pp. 355~357; vol. 26, pp. 403~404; vol. 27, pp. 424~425; vol. 28, pp. 496~497; vol. 29, pp. 496~497.
- 해양수산부. 1997~2000. 해양수산통계연보. 해양수산부, 서울, 1997, pp. 1162~1198; 1998, pp. 1172~1208; 1999, pp. 1180~1254; 2000, pp. 1055~1208.
- 해운항만청. 1989. 해운항만통계연보. 해운항만청, 서울, vol. 13, 401 pp.

Received : November 5, 2001
 Accetped : December 15, 2001